

제 148 호

연중 제 26주일

1975. 9. 28.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법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③3498)

□한국 주교단 사목 교서□

79위 한국 순교 복자 시복 50주년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79위 복자 시복 50주년과 의의

금년은 우리의 한국 순교 복자 103위중 79위가 복자가 되신지 꼭 50주년의 이른바 금경(金慶)을 맞는 아주 뜻깊고 경사스러운 해입니다.

79위 복자들은 다 “기해 박해”(1839) 아니면 “병오 박해”(1846)때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1925년 7월 5일 주일, 교황 비오 11세께서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한국 순교자 79명에게 존귀한 복자의 시호(諡號)를 주시으로써 그들의 순교가 확실하고 따라서 지금 천상에서 영복을 누리고 있음을 성대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뿐더러 교황께서 친히 우리 복자들의 유해 앞에 굽어 기도하심으로 그 후부터 우리가 그들을 전례 가운데 공공연하게 공경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 교황께서는 시복식에 참여한 우리 주교님들에게 “이제 세계의 외롭던 한 구석이 치명록에 실리게 된 것은 성교회의 영광이요 나와 여러분의 다같은 출거움입니다”라고 치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날 한국과 한국 교회는 이종의 영광을 차지하였으니, 첫째는 우리의 순교자들이 비로소 천상 성인 반열에 기록되는 영광이었고 둘째는 로마가 교회의 으뜸인 교황을 통해 한국순교자들에게 영광과 찬사로 값어치 주시으로써 극동 한구석 거의 미지의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세계속의 한국과 한국 교회로 발돋움하게 한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기원과 발전 과정에서 당신의 기묘한 섭리를 드러내 보이신 천능하시고 인자하신 하느님께서 이제 그 순교자들을 통하여 당신 인종의 위대함을 또한번 드러 내셨습니다. 교회가 창설된 지 불과 2백년이 못되는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한국 교회는 그 순교자의 수로 보거나 그 영웅적 행위로 보거나 어느 면에서도 다른나라 교회에 뒤지지 않고 있음을 세계 만방에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입자 된 대주교님은 시복 당일의 벅찬 감격과 기쁨을 이렇게 표현 하셨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래리지의 손으로 제대 위에 안치되어 만인의 공경을 받게 되었으니 그들의 개선이야말로 내 일생을 통하여 크나큰 행복입니다. 천주여, 한국 교회에 이처럼 훌륭한 영광으로 상 주심을 충심으로 감사하나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감격이 깊었고 가장 영광스러웠던 79위 시복 50주년을 기념하고 추억하

는 것은 우선 그날의 감격과 영광을 되새기며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의 영광과 감격으로 맞보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순교자의 영광이 곧 그들의 자손된 우리 자신의 영광이요 그들 영광의 증인이며 또 교회의 오늘의 영광이 순교자의 피에 힘입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에게서 순교자에 대한 감사와 그들을 현양하려는 마음이 우리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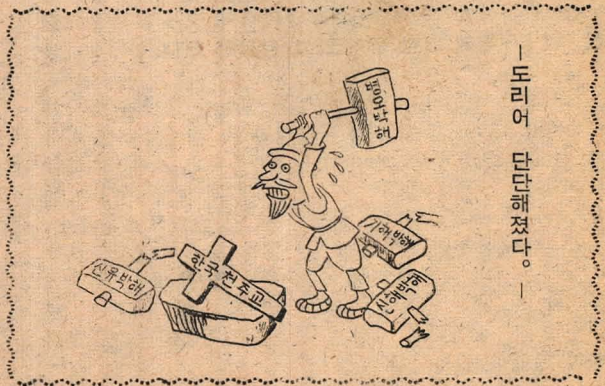
복자들에게 대한 우리의 심심

우리는 각자 자기의 처지와 능력에 따라 모두가 순교자 현양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들을 하루 빨리 성인품에 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큰 현양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79위 복자는 순교하신 증거가 확실함으로 복자가 되셨지만 앞으로 성인품에 오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적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난치의 환자나 아주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수시로 특히 9일기주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복자들의 진구로 기적을 얻도록 권고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될 때에는 반드시 본당신부나 교구장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자들은 천주 대전에 힘있는 중개자(仲介者)인 동시에 우리를 위한 유력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조국에 평화와 안정이 빨리 정착하고 또한 북한 동포와 교우들의 시련의 날을 단축시켜 주시도록 우리 복자들에게 특별한 중개와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2면으로 계속)

순정이 산책



(2) 숲 정 이

(1면에서 계속)

그리고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은 순교자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감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교 선열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모범적인 평신도 사도로서의 훌륭하고 빛나는 표양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복자들이 남겨주신 정신과 표양

주지하시느 바와 같이 한국 교회는 선교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다만 평신도에 의하여 창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충청도의 내포, 전주, 제주도, 북간도 등의 지방교회도 다 평신도 스스로의 힘으로 창설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는 창설 이래 장기간에 걸쳐 신부도 미사도 성사도 없이 오직 성신과 그 은총을 받은 신도단에 의하여 유지되고 전파되어 왔다는 기적적인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의 초창기야말로 성신이 직접 인도하신 카리스마적(특은적) 교회였습니다.

공의회는 성숙한 신도단의 신앙과 행동적 모범이 없으면 복음이 그 민족과 생활속에 뿌리박을 수 없으므로 어린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숙한 신도단의 역할을, 없어서는 안될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선교활동 21). 우리의 초대교회가 복음을 정착시키고 토착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공의회가 언급하는 그러한 신도단이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즉 이미 평신도가 뛰어 놓은 기반 위에 선교사가 파견된 때문입니다. 평신도의 첫째 의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선교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평신도 사도적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또 결실도 풍성하게 실행되었던가는 성서에서 얼마든지 그 예를 볼 수 있으며 우리 한국의 초대 교회도 절대로 그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초대교회에 못지 않게 평신도의 열의가 필요할 뿐더러 다방면에 걸친 변화는 일층 평신도의 자각과 봉사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도직의 목표는 비단복음 선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요 더 나아가서 세상을 성화하는데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 순교자들이 박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그들의 사도직이 복음 선포에 국한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는 다만 사람들을 성당으로 인도하여 교우를 만드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되겠으며 이 세상을 복음 정신으로 침투시켜 그것을 성화하고 사회질서를 쇠신하고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더우기 오늘날의 사회가 날로 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때 그 만큼 이 분야에서의 평신도의 분발이 긴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순교라면 으레 우리는 수난이나 죽음과 동일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의회가 순교의 의의를 그 "증거성"에서 되찾음으로써 그간 등한시 되어 온 순교의 성서적 원의를 재 강조한 것은 현대인의 신앙생활을 위해 극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의회는 교부들도 순교를 신·망·애덕에 대한 증거요 그 완전한 표현으로 보려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는 첫째 신앙의 찬란한 증거자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위정자들 앞에서 그 절대권을 증거하였으며 또한 "사람에게 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사도 5, 29)고 한 사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소리를 중요시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좌우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인 신교의 자유를 이유도 없이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박해자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실천해야 할 중심 과제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악령들을" 대항하여 (예레 6, 12)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환원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죄로 유혹하는 제도나 생활 조건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하고 또한 종교를 폐쇄시키려는 사회, 신교의 자유를 방해하고 탄압하려는 사회는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의무를 다하려면 우리에게 사도적 용기가 필요하며 그것은 어떠한 반대에도 좌우되지 않고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교자들은 순교를 통해 후세 생명을 그들의 유익한 희망의 목표로 제시하고 증거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희망을 우리의 생활자체를 통해 이 세상에서 드러내고 증거해야 합니다.

순교자들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증거자입니다. 순교는 사랑의 증거 중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증거입니다 (교회현장42). 이러한 사랑의 증거를 위해서 순교자들은 특별히 불린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순교를 아주 뛰어내고 예외적인 성신의 은사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를 성신의 특별한 은혜로 돌리는 것은 순교자들의 용덕때문이 아니요 인간에 대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증거한 참된 순교자 그리스도를 모범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로 각오한 때문입니다.

어떠한 순교자도 그가 받는 형벌만으로 죽는 것은 아니며 그가 행한 사랑의 증거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입니다" (마태 16, 25) 누가 주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다면 그는 사랑때문에 잃는 것이고 이로써 사랑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성성(聖性)으로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성성에 이르는 데는 많은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떠한 것이든 율법의 완성인 사랑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합니다. 환원하면 우리는 순교자들 처럼 비록 사랑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받은바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써 이에 보답 할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성년과 시복 50주년

바로 50년전 한국 순교자 79위의 시복식이 거행되던 해는 성년이었습니다. 교황청은 우리 79위의 시복식을 위시하여 이 해에 여러 시성식과 시복식을 거행함으로써 성년을 더욱 성대하게 하여 더욱 많은 순례자를 모마로 이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금년도 성년입니다. 성년과 시복식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던 것처럼 금년의 성년과 시복 50주년도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화해의 성년에 도움이 되는 뜻깊은 50주년으로 끝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73년 성년 선포에 즈음하여 본 주교단은 쇠신과 화해로써 성년을 뜻있게 지낼 것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화해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내적 쇠신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속죄가 따르지 않는 화해의 성년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성년도 이제 막바지에 들어섰으니 우리 순교복자들을 모범으로 삼고 외부행사 보다는 우리 자신 내부의 쇠신에 중점을 두고 그리스도의 참된 승리가 더욱 빛나도록 날로 더욱 정화되고 쇠신되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순례가시는 분들도 순례가 결국 그간 노력해 온 쇠신 작업의 정점(頂點)을 의미하며 순교자 베드로 사도의 무덤에 대한 순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교복자 79위의 특별한 가호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더불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975. 9. 26 복자축일

한국 천주교 주교단

[강론]



『그리스도와 순교』

양 재 철 신부

성서에서 「순교」란 낱말이 본래 「증거」의 뜻에서 사용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받은 사랑을 보답하며 그것을 증거함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순교」의 원형(原型)이시요, 모범이 되신다. 성부께서 맡기신 사명을, 자신의 십자가상 희생제사를 통하여 충실히 수행하심으로써 하느님-성부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고 또한 증거하시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아셨을 뿐 아니라, 성부께 드리는 가장 완전한 존경과 사랑으로 이 죽음을 기꺼이 받아 드리셨다. (요한 10장18), 빌라도의 심문을 받으실 때에도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러 왔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노라고 선언하시었다. (요한 18장37).

한편 신약성서 전체는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자 이사이야에 의해 예언된 「고통받는 종」임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그리스도의 수고·수난과 죽음은 당시 치상자명에 있어 본질적인 것으로써 야훼-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증거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야훼의 종이 「많은 이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고통받고 죽어야 한다 (이사이야 53장11)고 구약이 강조하듯 예수께서도 「많은이에게 죄의 해방과 구원을 주시러 죽음을 당하셔야 했다」(마태오 20장28). 하느님-성부의 지독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속죄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 하느님의 구원계획은 이같은 고통과 죽음을 통한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모든 예언자들도 혹심한 박해와 치절한 죽음을 당하면서 하느님께 대한 충성과 사랑을 증거하지 않았던가? 우리 모든 크리스찬도 「순교-증거」의 가장 깊은 뜻을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한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임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순교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그분과 같이 인류 구원-세상 구원을 위해 하느님 사랑을 증거하도록 불리워진 것이다. 그 지체인 우리도 똑같은 소명을 받은 것이리라.

그렇기에 주님께서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을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며, 「그들이 나를 박해 했으면 당신들도 박해할 것이다」(요한 15장20)고 하시지 않았던가! 또한번 우리들에게 「오직 땅속에 묻혀 죽은 씨앗만이 많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의미심장한 진리를 깨우쳐 주시지 않았셨는가.

복자성월을 보내면서 순교의 깊은 뜻을 다시한번 묵상하여 보자.

(이리 주현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요십이 (114) 김병오

1년에 세수비누와 수건값으로
1천64만여 원은 쓴 국회의원
오신다

익크! 손모양이
이상하며
깨끗하지도
않구나

나환자촌의 공소를 지으라고
금반지를 희사한 서학동 본당
교우가 온다

금반지는 없어도
손이 빛나는구나

※ 이 주일의 미사 ※

- 제 1 독서 (마카베오 후서 6:18-21, 24-31)
당신이 두렵기에 즐거이 이 고통을 당하나이다.
- 제 2 독서 (로마서 8:31b-39 성서 P 353)
죽음도 생명도 우리를 하느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 복음 (요한 17장 11-19 성서 P 250)
세속은 그들을 미워하였다.
- 신자들의 기도
순교자의 모형이시요, 세상 모든 증거자들의 모범이신

주여, 천상 예루살렘을 향하여/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당신 백성으로 하여금/굳은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며/매일의 생활속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어/천주 성부께 끝없는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이 땅에 당신께 대한 충성과 사랑 때문에/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며 사시다가/귀한 목숨까지 바치신 우리들의 선조 순교복자들의 정신과 생활을 본받아서/거룩하신 아버지 천주 성부의 이름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당신 나라가 하루빨리 임하시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 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옆 중앙시장통
(전화 ③ 4577)

여성 여러분에게 텃을 팝니다

세느의상실

최춘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뉴 명보제과 앞
전화 ② 6219

교형 여러분의 집

스타 사진관

장남수(바오로)

●오거리통, 동아여관 앞
전화 ② 6094



* 10월은 전교의 달, 로사리오 성월

생활의 증거로 이웃에 전교합니다. 우리는 모두 전교의 의무인 예언적을 수행해야 합니다. 본당 신부님
과 상의하시어 전교회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전교 일선에서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로사리오 성월 맞아 성모님께 묵주의 꽃다발을 봉헌합니다. (지난 주 <윤정미 산책>에 단(일본에 성모
님 발현) 만영을 보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데, 9월 14일자(가톨릭 시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동체 묵상회 (10월 1일 오후 2시-3일 오후 2시, 가톨릭 센터, 회비 3,500원)
2. 익산 나환자촌 공소 건립에 헌금하신 분, 감사합니다.
3. 사목현장 교육을 위해 9월 28일 주일에 1일 본당신부 실시는 복자주일이기 때문에 10월12일 주일로 연기하며 그날 실시는 다음과 같다
덕진본당 김환철신부, 전동 " 함승천신부,
(중앙) 김종길신부, (복자) 박종근신부, (서학동) 김동준신부, (노송동) 한봉섭신부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이 대 권
②3874 보좌 신부 김 동 준
사도 회장 이 상 용

1. 성심 부녀회 월례회: 10월 3일 어머니 미사후
2. 애령회 총회: 오늘 오후 8시 미사후(임원들 참석)
김 중순 회장님께서 5,000원 애령회에 회사했습니다
【금주】엄만섭: 20,000원, 진병기: 5,000원.
3. 마당 포장공사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협력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 승 천
사도 회장 조 해 형

1. 안도니오 재속 형제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2.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3. 사도회 임원 <선교>김성록<전례>박종근<봉사>김정생
<재경>이홍재 <감사>장성복, 전길남
4.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박 메리수: 30,000원 이 숙자: 3,000원
김 요셉피나: 2,000원 주계: 35,000원
누계: 4,079,627원
5. 새 성당 의자 주계: 46,500원
○ 신축 성미 누계: 230말

(덕진)

전화 ② 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용 환

1. 사도회 임원 및 신규 사도회 인수인계: 공식 미사후
2. 사도회 정기총회: 다음주 공식미사후(신년예산심외)
3. 신용 조합 임원회: 10월 5일 공식 미사후
4. 반 미사 및 교육
금압 2반: 1일<수>오후 8시, 남상용씨때
금압 3반: 2일<목> " 소완영씨때.

5. 주일학교 치명자 산 참배: 9.28(일)오후 1시 출발.
성서, 기도서, 교통비 50원, <미사> 4시30분.

(복자)

전화 ② 5238 주임 신부 김 종 길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사도회 임원 <선교> 허 테레사 <전례>장동주
<봉사>최복주 <재경>박상기 <감사>윤화복, 양규철
2. 사도회 상임 위원회: 오늘 2시30분.
고문, 회장, 부회장, 각위원장, 차장, 감사, 구역장
3. 김 라파엘 본당 주임신부님 영명 축일.
9월29일<월> 많은 기도와 협조 바람.
□미사에 나오신분 <남>98명 <여>267명 <계>365명.

(서학동)

전화 ② 2276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박 장 훈

1. 사도회 총회: 오늘 오후 2시.
(사도임원 인사소개, 결산보고, 예산편성)
2. 예비자 교리: 10시 미사후
3. 중·고 교리: 토요일 오후 6시40분.
5. 신용조합 월례회: 공식 미사후

(전동)

전화 ② 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양 한 윤
사도 회장 함 영 소

1. 사도회 일일 묵상회: 오늘 상판 성당에서. 11~4시
2. 미사시간 변경 <새벽 6시, 저녁 7시>
3. 방지거 삼회 월례회: 오늘 오후 1시30분
4. 학생 예비자 교리: 토요일 5시 미사후.
(성인: 주일, 수요일 저녁)
5. 본당 사무실 구 사제관으로 이동함.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 창 지 제 부 제 수 안 신 류 태 인 정 읍	성가대 20분전 미사 준비 성가 연습 사도회 정기총회 사도회 정기총회 본당 예산 편성 및 결산 총회		3,720원	제 3 지구	주현동 장인동 황 등	신 사도임원, 구역장 모임 및 환영식 푸리아 월례회 전진 대상자 교리		58,675원
				23,415원					48,575원
제 2 지구	대 아 문 울 월 동 명 동 충 동 환 열	사도회장단 및 감사진 선거 푸리아, 청년회 사도회 정기총회 신협 월례회		2,905원	제 4 지구	중 앙 송 동 진 진 자 자 서 서 학 학 동 동 전 전	성심 부녀회 안도니오 재속 형제회 월례회 사도회임원및신구사도회인수인계 사도회 상임위원회 사도회 총회 사도회 일일 묵상회		63,160원
				15,800원					25,365원
제 3 지구	고 산 금 산 여 산	사도회 월례회 신 구 사도위원 개편		5,620원	제 5 지구	남 누 주 주 춘 춘 임 임 장 장 정 정 진 진	테레사회, 성모회 교무금을 완납 합시다 어린이 교리		13,710원
				39,390원					6,110원
				25,080원					3,705원
				13,150원					원 원
				원 원					원 원